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미 숙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민요를 활용한 첼로지도 방안 연구

2010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효 진

민요를 활용한 첼로지도 방안 연구

김 미 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효 진

인 준 서

김효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이 연구는 민요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중급자 첼로 교육에서 다양한 민요 기법을 첼로 기법에 적용해서 학생들의 민요 교육과 첼로 교육의 흥미를 유발 하여 자국의 음악을 이해하고 한국적 감정 표현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첼로 악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변천과 구조를 설명하였으며 음악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민요의 교육적 가치와 ‘아리랑’과 ‘진도아리랑’, ‘옹헤야’ 민요를 분석하였고 원곡과 첼로기법으로 된 악보를 서로 비교하였다. 다양한 기법을 첼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표를 통하여 제시하였고 중급 단계인 5명의 학생을 선정하여 첼로 학습에 대한 학습 지도 계획을 세웠다. 1단계 ‘민요 익히기’, 2단계 ‘다양한 민요 기법 익히기’, 3단계 ‘민요 합주하기’, 총 3단계로 나누어 민요의 기법을 익히기 위한 연습곡과 참고곡을 제시하였다. 수업지도안을 총 12차시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하였고 학습 후 학생들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제시한 민요곡을 통하여 음악적 표현을 함께 학습함으로써 학생의 첼로 기량을 높이고 기본기의 지속적인 발전과 스스로 음악적 맥락 안에서 레파토리 확장을 통해 효과적이고 흥미를 유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민요를 활용한 첼로지도안이 중급자 수준에서 첼로를 배우는 학생의 교육에 있어 교사들에게 효율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창의적이고 다양한 레파토리로 즐겁고 흥미로운 첼로 지도 방법의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II. 이론적 배경	4
1. 첼로의 변천과 구조	4
2. 민요의 교육적 가치	8
3. 민요선정의 기준	10
4. 선정한 민요의 분석	12
III. 첼로 기법을 적용한 민요지도	18
1. 민요의 연주기법 비교	18
2. 첼로 학습 지도 계획	32
3. 단계별 수업 지도안	36
IV. 결론 및 제언	57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차

<표 1> ‘아리랑’의 주요 특징	12
<표 2> ‘진도아리랑’의 주요 특징	14
<표 3> ‘옹헤야’의 주요 특징	16
<표 4> ‘아리랑’ 비교 1	20
<표 5> ‘아리랑’ 비교 2	20
<표 6> ‘아리랑’ 비교 3	21
<표 7> ‘아리랑’ 비교 4	21
<표 8> ‘진도아리랑’ 비교 1	24
<표 9> ‘진도아리랑’ 비교 2	24
<표 10> ‘진도아리랑’ 비교 3	25
<표 11> ‘진도아리랑’ 비교 4	25
<표 12> ‘진도아리랑’ 비교 5	25
<표 13> ‘진도아리랑’ 비교 6	26
<표 14> ‘진도아리랑’ 비교 7	26
<표 15> ‘진도아리랑’ 비교 8	26
<표 16> ‘옹헤야’ 비교 1	29
<표 17> ‘옹헤야’ 비교 2	30
<표 18> ‘옹헤야’ 비교 3	30
<표 19> ‘옹헤야’ 비교 4	31
<표 20> 단계별 지도 계획	32
<표 21> 전체 단계의 활동지도 계획	34
<표 22> 지도 대상	35
<표 23> 첼로 학습 후 학생 평가	55

그림 목차

<그림 1> 비올라 다 감바와 비올라 다 브라치오	5
<그림 2> 첼로의 구조	6
<그림 3> 첼로의 넥 포지션과 4개의 현	7

악보 목차

<악보 1> 기법 비교	11
<악보 2> ‘아리랑’ 원곡	18
<악보 3> ‘아리랑’ 첼로악보	19
<악보 4> ‘진도아리랑’ 원곡	22
<악보 5> ‘진도아리랑’ 첼로악보	23
<악보 6> ‘옹헤야’ 원곡	27
<악보 7> ‘옹헤야’ 첼로악보	28
<악보 8> 토셀리 ‘세레나데’	37
<악보 9> 찬송가 ‘참 반가운 성도여’	37
<악보 10> 바흐 ‘미뉴에트’	38
<악보 11> ‘꿈길에서’	39
<악보 12> ‘아리랑’ 첼로 악보	41
<악보 13> 드보르작 ‘신세계 교향곡’ 4악장	42
<악보 14> ‘작은별’	43
<악보 15> 케를 ‘루돌프 사슴코’	43
<악보 16> ‘나비야’	44

<악보 17> 포지션 연습곡	44
<악보 18> ‘가보트’	46
<악보 19> ‘진도아리랑’ 첼로 악보	48
<악보 20> ‘알레그레토’	49
<악보 21> ‘빠꾸기’	50
<악보 22> ‘2중주 연습곡’	50
<악보 23> 바흐 ‘사랑의 협주곡’	52
<악보 24> ‘옹헤야’ 첼로 악보	5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현대인들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생활수준도 많이 향상되면서 여가의 활용과 취미생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여러 가지 취미생활 중 음악 감상은 가장 보편적인 취미활동이다. 문화 예술의 사회적 참여가 활발하여짐에 따라 사람들의 음악교육에 관한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¹⁾ 최근에는 성인 뿐 만 아니라 학생들도 악기연주의 음악활동을 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피아노와 바이올린 등 악기를 배우지 않는 학생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음악교육이 보편화 되어 있다. 또한 학교에서는 방과 후 활동에 악기 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편성되고 있다.

악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려는 학생들이 늘면서 그 중 첼로를 배우려는 어린이부터 성인의 수도 늘어났다. 그러나 첼로 같은 경우, 교재가 다양하지 않고 국내외에서 제작된 기초 교본들과 기존에 있던 교재에 개정만 될 뿐 취미 생활을 하려고 하는 학생에게 맞는 체계적이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재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재의 선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하여 악기에 흥미를 잃게 되어 중도에 첼로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첼로 악기의 특성상 저음악기이기 때문에 멜로디 보다는 고음악기의 반주를 위한 연습곡이 많아서 다양한 곡을 접할 기회는 적어 즐겁고 재미있게 취미 생활을 위한 다양한 첼로 교재로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최근 항공사의 CF를 보면 “우리의 노래를 세계와 함께” 라는 내용으로 우

1) 교육부, 「음악과 교육 과정,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8), p. 28

리나라 경기민요 아리랑을 여러 서양악기로 연주하는 장면이 나온다. 세계적으로 상호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른 다문화주의교육론에 힘입어 전통 음악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현행 음악교과서에도 국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놀이를 통해 또는 노동을 통해 입에서 전해지는 형식으로 사람들의 삶에 흡수되기 쉬운 매체인 데도 이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첼로 악보 중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스즈키 교본 같은 경우 거의 외국 민요가 수록 되어 있다.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외국 민요는 모르는 학생들이 없을 만큼 널리 알려진 곡들 위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다른 나라 민요는 많이 알고 배우려 하지만 우리나라 민요에 대해서는 흥미와 관심이 크지 않다. 헝가리의 음악교육학자인 코다이 (Zoltan Kodaly) 는 음악도 모국어를 배우듯이 익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요를 배우고 익힘으로써 자연스럽게 배움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민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반복되는 리듬과 가락, 장단과 선율을 느낄 수 있는 민요를 활용하여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레파토리 확대를 통하여 자국의 음악을 이해하고 한국적 감정 표현을 활성화 하여 효율적인 첼로 지도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이 연구는 첼로 악기의 역사 및 기법과 민요의 의의를 문헌 연구를 통하여 이론적 배경으로 알아보고 중학교 1학년 교과서 16종에 가장 많이 수록된 민요인 ‘진도아리랑’, ‘옹헤야’, 그리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민요인 ‘아리랑’ 총 3곡의 민요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본론에서는 3곡의 민요를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참고곡은 기존에 있는 교

과서나 첼로 교본에 있는 곡을 선정하고 민요기법에 필요한 부분을 편집하여 배우는 학생들에게 쉽고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악보로 제시한다. 그리고 선정된 민요에서 높은 음자리표(♯)를 첼로 악기 특성에 맞게 낮은 음자리표(♭)로 바꾸어 쉽게 첼로 학생들이 연주 할 수 있게 적용하였다. 또한 민요의 기법과 첼로의 기법 중에 비슷한 기법을 골라서 민요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지도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첼로지도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민요기법을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첼로의 지도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기본적인 첼로기초를 학습한 학생을 대상으로 중급 수준인 스즈키 교본 2권 이상을 배우는 학생으로 제한한다. 그리고 그 수준에 맞는 학생 5명에게 민요를 활용한 첼로지도를 하고 학습의 결과를 사례로 제시하여 지도방법 개발에 참고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첼로의 변천과 구조

첼로는 바이올린 족에 속하는 악기로 바이올린(violin), 비올라(viola), 콘트라 바스(kontra-bass)와 함께 16세기에 나타났다. 관현악 악보에 첼로 ‘cello’ 라고 표기 한 것은 원래 악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첼로를 연주하는 사람(cellist)을 약어로 표기한 것이다. 첼로의 정식 명칭은 비올론 첼로(violoncello)인데, 이는 작은 더블 베이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첼로(violoncello)는 비올 (viol)족에서 유래되었다.²⁾ viol은 Italy어로 viola라고 하며 옛날 악기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viol족 악기는 현이 가늘고 현의 표준 수는 6현이나 악기에 따라서 5~7현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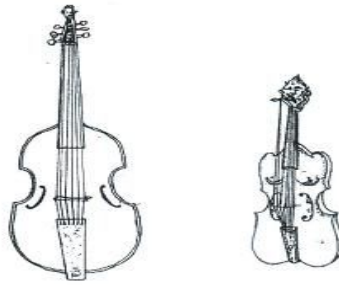
Viol족의 대표적 악기로는 viola da gamba와 viola da braccio가 있다. 두 악기는 형태나 연주자세로 볼 때, violoncello는 viola da gamba의 영향을 받았고 violin은 viola da braccio의 영향을 받았다

초기의 첼로 형태의 악기는 F, C, G음으로 조율되는 3줄을 가지고 있었다. 16세기 초에 B, F, C, G음으로 조율되는 4개의 첼로가 이탈리아에서 등장하여 독일, 프랑스, 영국, 등으로 전파되었다. 이것이 1550년경 독일에서 오늘과 같은 C, G, D, A 음으로 조율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1770년대 이전의 악기들은 그 몸통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 73~80cm까지의 크고 작은 여러 형의 악기가 제작 되었고 1710년경 스트라디바리³⁾ (Antonio Stradivari, 1644~1737)에 의해 몸통 길이가 75cm정도로 고정되었다. 보통 첼로의 전체 길이는 120cm로 바이올린의 두 배쯤 된다.

2) 김을근, 「새 악기 해설」 (서울: 아름 출판사, 1995.) p. 218

3) 스트라디바리: 현재의 표준형 바이올린의 창시자이며 최고의 바이올린 제작자로 평가 받고 있는 이탈리아 크레모나 출신의 악기 제작자.

<그림 1> 비올라 다 감바와 비올라 다 브라치오



비올라 다 감바

비올라 다 브라치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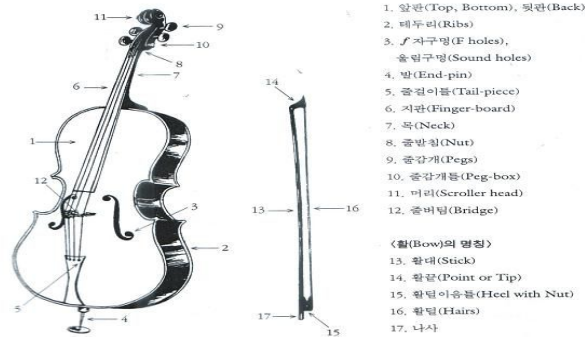
첼로는 주로 통주 저음 (basso continuo)⁴⁾의 악기로 사용되었는데 18세기부터 점차 독주 악기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1750년 이후 목과 지판이 길어지고 줄 받침도 보다 높고 둥글게 개량되어 더욱 부드럽고 탄력 있는 음색을 얻게 되었다. 비올라 다 감바 <그림 1>는 6개의 현으로 되어 있는데, 윗부분을 둥글게 한 현의 받침대에는 당시 사용되던 활로 화음이나 중음의 연주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줄감게 위의 머리 부분에는 동물이나 여인의 얼굴, 천사 등 예술적인 조각이 새겨졌다. 그 후 감바의 변종으로서 6현 악기인 아르페지오네가 만들어 졌다.⁵⁾ 이처럼 많은 형태의 악기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차츰 적합한 하나의 악기로 만들어 진다. 18세기 말에는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등의 작곡가들에 의해서 violoncello는 독자적인 역할을 시작하여 오늘날 화음악기가 아닌 독주악기로 거듭났다.

19세기 말 세르바스 (A.F.Sernais)가 도입한 받침 못 (end pin)의 쇄신으로 첼로의 연주 기량이 크게 발달하게 되었다⁶⁾

4) 통주 저음: 17-18세기 유럽에서 널리 행해진 것으로 건반악기 주자가 주어진 저음위에 즉흥적으로 화음을 맞추면서 반주성부를 완성하는 방법, 독주 파트가 될 때에도 저음은 악곡을 일관하여 연주되기 때문에 continuo(독주)라 불렀다.

5) Julius Bachi 저, 편집국 역, 「세계의 명 첼리스트」,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6), p. 8

<그림 2> 첼로의 구조



오늘날 일반적으로 첼로의 전체 길이는 120cm로 바이올린 길이의 두 배 쯤 된다. 바이올린이나 비올라처럼 턱 밑에 끼고 연주하기에는 너무 커서 대신 양 무릎 사이에 가볍게 끼우고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받침뿔으로 바닥에 고정 시켜서 연주한다.

악기의 내부에는 줄버팀(bridge)의 오른쪽 아래 조금 뒤쪽으로 소리기둥(Sounds-bast)이라는 원통형의 가는 기둥이 세워져 있다. 이 소리기둥은 앞판에 가해지는 줄의 압력을 받침과 동시에 울림을 앞판에서 뒤판으로 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악기의 음은 이 소리기둥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소리기둥이 빠지거나 손상이 간다면 음이 충분히 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판이 깨질 수도 있으며, 몸체의 뒷부분이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보여야 한다.

소리기둥의 반대쪽에는 가장 두꺼운 현에 따라 길고 가느다란 역목(Bass-bar)이 붙어져 있는데 이 역목은 앞판을 튼튼하게 함과 동시에 음의 저력을 내는 역할을 한다. 이들 내부의 구조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불가능하지만 f자 울림구멍으로 들여다보면 일부를 볼 수 있다.⁷⁾

6) 김을근, 앞글, p. 219

첼로의 뒤판과 옆판, 머리 줄감개 집, 목 부분은 재질이 강한 단풍나무를 사용하고 앞판은 부드러운 가문비나무를 사용하며 뒤판은 하나로 된 통판을 사용하거나 두 조각을 붙여서 만든다. 버팀목은 건조한 소나무가 쓰이고 지판, 줄감개, 줄걸이 틀은 습기가 강하고 단단한 흑단으로 만들어진다. 오늘날의 줄 받침의 높이와 모양은 1806년에 규정되었고 독일 형, 프랑스 형, 벨기에 형태가 각각 쓰여진다. 현은 오랜 옛날에는 양장(거트)⁸⁾으로 된 재질이었지만 지금에 이르러 스틸(강철)현이 보급되어 음색이나 울림이 발달되었다.

각 4현의 음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첼로의 넥 위치선과 4개의 현



7) 이구일 「정통 주법과 최신 지도법에 의한 첼로 교실」, (서울: 현대음악출판사, 2006), p. 10
 8) 양장: 원료는 양의 소장이며, 속을 씻어낸 후 매우 강한 장력을 지닌 조직만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은 용해된다. 이 조직을 세로로 찢어 그것을 양 가닥 합쳐서 필요한 굵기로 만든 것을 꼬아 말려서 원통상으로 다듬은 것.

2. 민요의 교육적 가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서양에서 들어온 것들이 점차 영향력이 커지고 음악도 서양음악에 바탕을 둔 교육을 하게 되어 현 세대의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것이라는 교육의 기능의 본질이 상실하여 우리 문화의 이해와 계승·발전보다는 서양문화의 이해에 치중하여 우리 음악의 중요한 기능이 교육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것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고유한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켜서 서양 뿐 만 아닌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것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요즘 방송매체를 보면 서양 악기로 혹은 서양 사람이 우리의 민요를 부르거나 연주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는 광고에서도 민요를 편곡하여 사람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게 광고를 하기도 하며 응원가로도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전통음악과 현대인들의 정서적 간극을 조금씩 좁혀나가는 노력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통음악이 지닌 열린 속성이 창의적 사고를 자극하는데 도움을 주어 전통음악의 형식 위에 현대의 정서와 시대상을 담아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학교에서의 음악교육도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노래로 표현하고 공유하는 방법을 가르쳐 자주적인 음악생활을 할 수 있게 함과 더불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키워 나가도록 힘쓰고 있다.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가는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답게 만든다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인간의 중요성을 일깨운다는 것이다. 교육은 인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데 일조 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조건이어야 한다.

음악은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하는 데에 꼭 필요한 교과이다. 예전부터 음악은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만드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플라톤은 ‘음악의 리듬과 멜로디는 교양 있는 젊은이의 마음에 작용해서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정신적 조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라고 하였고 공자는 ‘악은 우주의 조화이며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⁹⁾ 이와 같은 이유로 음악은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우기 위한 교육의 한 부분을 차지하여 왔다. 음악 속에 반영된 인간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며 창조성을 기르기 위한 수단으로 또한 삶의 모습을 음악으로 통하여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교육으로서의 기능 이외에 음악은 그 속에 담겨있는 문화적 의의를 찾고 그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교육이다. 사람을 문화적 존재라고 한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주어진 음악환경 속에서 습득하여 생활하고 또한 새로운 음악문화를 창조해낸다. 그러므로 음악은 문화적으로 유익한 경험을 끊임없이 제공하는 것이다. 훌륭한 음악은 인간이 환경과의 반응으로 얻은 영향으로 악보에는 없는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음악 교육은 자기가 속해 있는 문화 언어와 생활 모습이 담겨있는 민속음악을 통하여 문화의 이해 및 계승 발전에 역점을 두면서 자연스럽게 접근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전통음악의 특징을 이해하고 직접 경험함으로써, 세계 음악 속에서 우리 민족 음악의 정체성을 찾고, 그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¹⁰⁾

이와 같이 전통음악 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접근은 전통음악 분야 중에서도 민요를 통해 가장 쉽고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민요는 음악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앞 세대에

9) 김종부 “공자와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연구” 「음악교육연구」, 1990, p. 85

10)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 체육, 음악, 미술」,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9), p. 25

서 뒷 세대로 전승된 노래이다.¹¹⁾ 민중의 삶의 모습 그 자체이며 생존과 직결된 것이다. 민요 안에서 삶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음악적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음악을 이해하는 지름길이고 그 이해를 통하여 문화적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문화 계승과 서양악기의 조화를 통해서 다양한 음악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 특유한 민요의 기법을 서양악기연주 기법에 접목시킴으로써 문화적 교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국악기로 외국 민요를 연주하면서 현대적 감각의 개성을 나타내는 것과 서양악기로 한국 민요곡을 연주하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선율과 특유한 개성의 특징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학생들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접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3. 민요선정의 기준

민요의 선정기준은 우리나라음악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개정된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에 가장 많이 수록 되어 있는 곡인 ‘진도아리랑’과 ‘옹헤야’ 두 곡과 경기민요인 ‘아리랑’을 선정하였다. 그중 아리랑을 선정한 이유는 누구나 아는 민요로써 우리나라의 큰 행사나 경기가 있을 때 자주 부르는 대표적인 곡이며 서양 사람들에게도 알려진 유명한 곡이다.

이를 기준으로 선정된 민요의 특징을 보면 각 지방의 특색에 따라 낮은 음역을 사용하는데 첼로의 악기 특성도 낮은 음역의 악기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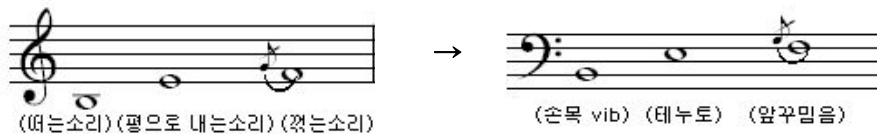
첫 번째 선정한 경기민요인 ‘아리랑’의 전체 분위기는 아름답고 우아함이 특징지어지는 곡으로 구성음인 ‘솔, 라, 도, 레, 미’로 이루어지는 5음 음계 조직에 기초하고 있다. 주로 곡에서 많이 쓰이는 음계는 ‘솔, 도’음 이다. 선

11) 전통예술원, “한국 민요의 음악학적 연구” 한국 예술종합학교 자료집, 2003, p. 399

울은 심한 도약이 없어서 인접 음들과 연결되면서 순탄한 흐름을 이루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하여 부드럽고 서정적이며 경쾌한 도시적인 느낌을 준다. 이처럼 첼로의 악기 음색도 부드럽고 편안한 소리가 특징적이며 ‘아리랑’에서 주로 쓰이는 음인 ‘솔, 도’는 첼로에서 4개의 개방 현 중 낮은 두음인 ‘솔, 도’가 있으며 첼로를 배우는 학생에게 쉽게 연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도 할 때 좋은 곡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선정된 ‘진도아리랑’은 남도 지방의 대표적인 노래이며 각 지역의 ‘아리랑’ 중의 하나이다. ‘진도아리랑’의 진도는 동백꽃이 많이 피고 풍경이 아름다운 곳으로서 지방 부녀자들이 밭을 매면서 또는 휴식 시간에 청승스럽고 멋들어지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진도아리랑’이다. 콧소리가 들어가는 것이 노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악보 1> 기법 비교



<악보 1>과 같이 굽게 떠는소리와 꺾는소리, 핑으로 내는 소리가 있다. 이러한 기법을 첼로에서 사용되는 기법으로 굽게 떠는소리는 손목 비브라토로 표현 될 수 있고 핑으로 내는 부분은 테누토로 표현이 가능하고 위 음을 꺾는소리는 첼로 기법에서 앞꾸밈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법을 학습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첼로 지도에 필요한 곡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선정된 곡 ‘옹헤야’는 경상도 민요로 태백산 동쪽의 강원도, 함경도 경상도 일대를 포함하여 동부 민요라고 한다. 경상도 민요의 특징은 빠르고 씩씩하고 쾌활하며 힘찬 느낌을 준다. ‘옹헤야’는 메기는소리와 받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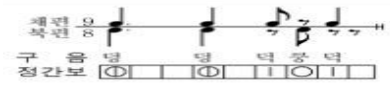
리로 이 부분은 첼로 2중주로 바꾸어 편곡할 수 있다. 첼로연주자 2명이 서로 메기는소리와 받는소리로 연주하여 ‘옹헤야의’ 특징을 잘 나타 낼 수 있다는 점이 선정에서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4. 선정한 민요의 분석

(1) ‘아리랑’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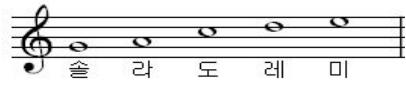

‘아리랑’은 우리나라 사람들 뿐 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민요로 서글프지도 않지만 흥겹지도 않은 중간적인 은근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아리랑’의 형성 시기도 지방의 어느 것보다도 늦게 이루어진 것이다.¹²⁾ 노래의 특징은 말붙임새가 독특하고 선율의 굴곡이 유연하면서도 장식음이 많아 경기민요 명창들이 부르는 시김새가 교과서 악보와 많이 다르다. 이는 시김새 표현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¹³⁾

<표 1> ‘아리랑’의 주요 특징

<p>주요리듬</p>	 <p>3박자 형태의 리듬으로 구성되어 있다.</p>
<p>장단</p>	 <p>세마치장단으로 되어 있다.</p>

12) 정동화, 「아리랑 산고」 (서울: 인하국어교육학회, 1999), p. 296

13) 이성재, 「재미있는 국악 길잡이」 (서울: 서울미디어, 1994) p.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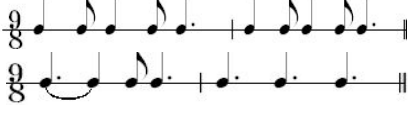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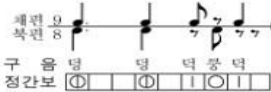


<p>형식</p>	 <p>A(a+b)B(c+b)의 두도막 형식으로 되어 있다.</p>
<p>구성 음</p>	 <p>5음 음계(솔, 라, 도, 레, 미)로 이루어지며 맨 위 음인 미는 미와 파의 중간 음 정도이다.</p>
<p>악곡의 특징</p>	 <p>가장 많이 나오는 주요 선율로 약간 떠는소리로 긴 박자<아->에 표현하기도 한다. 아리랑에서 가장 높은 음이 나오는 부분으로 <나를> 가사에는 꺾는소리로 부르게 되어 있다. 물이 떨어지듯이 이어서 표현하면 된다. 음 진행은 장 3도와 단 3도 진행이 많고 음색은 대체로 부드럽고 서정적이다.</p>

(2) ‘진도아리랑’의 특징

‘진도아리랑’은 전라도 전 지역에서 불리는 전라도 ‘아리랑’인데 70년대부터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리게 되었고 영화 ‘서편제’에서도 불리어 전국적으로 청소년들에게까지 널리 보급되었다. ‘아리랑’ 중에는 그 느낌이 가장 구성지고 흥겨운 멋 속에 애절한 한이 깃들여 있으며, 자연이나 인생 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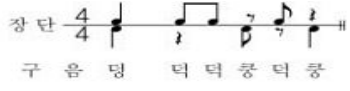


진리에 대한 것은 별로 없고 ‘님’을 그리며 사랑에 대한 낭만과 원망과 꿈을 노래한 여인들의 서민적인 민요이다. 또한 ‘님’에 대한 애끓는 심정으로 여인들의 속임 없는 감정이 잘 나타나 있다.¹⁴⁾ ‘진도아리랑’은 선이 굵고 굴곡이 심하여 남성적인 창법으로 다루어지며 느낌은 구성진 굵은 목을 눌러 내며 특히 격렬하게 떠는소리, 평으로 내는 소리, 꺾는소리 등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표 2> ‘진도아리랑’의 주요 특징

<p>주요 리듬</p>	 <p>3박자 형태의 리듬으로 엮어서 구성되어 있다.</p>
<p>장단</p>	 <p>세마치장단으로 되어 있다. 장단은 일정한 길이 리듬형으로써 가락과 함께 국악을 이루는 2대 요소 중의 하나로 장구 연습은 구음과 함께 병행하여 치도록 구성되어 있다.</p>
<p>형식</p>	 <p>A(a+b)B(a+b)의 세도막 형식으로 되어 있다.</p>
<p>구성음</p>	 <p>육자배기토리 또는 남도 계면조라고 하는 반음이 있는 5음 음계로 되어 있다.</p>

14) 백성현, “한국 민요”, 「음악 교육」, 9월호, 1998, p. 136

<표 3> '옹헤야'의 주요 특징

<p>주요 리듬</p>	 <p>대부분의 민요가 3박자 계통의 악곡인데 비해 옹헤야는 4박자 형태의 리듬으로 부르도록 되어 있다.</p>
<p>장단</p>	 <p>단모리장단으로 되어 있다. 경상도의 민요들은 대개 빠른 장단이 많이 쓰이며 흥겹고 경쾌한 점이 특징이다.</p>
<p>형식</p>	 <p>A(a+b)B(a'+b)의 벗어난 두도막 형식으로 되어 있다.</p>
<p>구성음</p>	 <p>미, 솔, 라, 도, 레 로 되어 있고 주요 음이 미, 라, 도 이며 4도 음정과 단3도 음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경상도와 강원도에서 흔히 부르는 메나리토리이다.</p>

**악곡의
특징**



한 마디 안에서 메기고(독창) 받는(제창) 선율로 구성되어 있다. 메기고 받는 형식은 우리 민요가 갖고 있는 특징의 하나이며 한 마디 안에서의 앞의 가락은 메기고 뒤의 가락은 받는 형식으로 부르며 곡의 시김새를 살려 표현하고 있다.

악센트와 스타카토의 악상을 살려 세게 부르면서 경쾌하고 흥겨운 느낌이 들도록 구성되어 있고 음정 구조는 4도와 단3도의 음정이 나타나고 있다. 국악은 화음이 없어 선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있고 음악적인 문맥 속에서 의미를 갖기 위하여 각 음마다 독특한 시김새를 표현한다.

Ⅲ. 첼로 기법을 적용한 민요지도

1. 민요의 연주기법 비교

(1) ‘아리랑’ 원곡

‘아리랑’은 9/8박자로 4분음표가 하나의 일정 박을 이루는 3박 계열의 겹박자 곡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곡 감상이 필요로 한다. 또한 붙임줄의 사용으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박자치기를 통해서 붙임줄과 이음줄을 학습하도록 한다. 점 4분 음표를 기준으로 강세를 넣어 약박에는 흘러가듯이 표현하도록 한다.

<악보 2> ‘아리랑’ 원곡

9/8박자로 점 4분음표가 하나의 일정박을 이루는 3박 계열의 겹박자곡

♩ = 66 세마지

아리랑

셋잇단음표 흘러가듯 표현

경기만

가사 '요' 부분이 강박이고 뒤에 올은 약박이 되어 '요' 강조하고 뒤에는 흘러가듯 표현

아 - 리 - 랑 - 고 - 개 - 로 - 넘 - 어 - 간 - 다 -

깊은소리 '시'를 짧게 소리내고 바로 '레'를 소리 낸다

아 - 리 - 랑 - 고 - 개 - 로 - 넘 - 어 - 간 - 다 -

서정적인 곡으로 부드럽게 '아리랑'의 곡을 표현하기 붙임줄의 박자와 이음줄을 부드럽게 이어서 연주

박자가 긴 음이므로 충분히 민요의 특성을 살리며 표현

나 - 풀 - 버 - 리 - 고 - 가 - 서 - 은 - 실 - 도 - 못 - 가 - 서 - 밤 - 병 - 난 - 다 -

(2) 첼로기법을 적용한 ‘아리랑’

원곡 ‘아리랑’을 낮은음 자리표로 바꾸고 같은 사장조로 음이 구성되어 있다. 9/8 박자 곡을 이해하기 위해 3박자 계통의 연습곡과 참고곡을 학습하여 전체적인 제재곡 ‘아리랑’의 느낌을 표현하도록 한다. 셋잇단음표를 부드럽게 연주하고 꺾는소리를 앞꾸밈음으로 바꾸어 ‘아리랑’ 민요기법의 특성에 맞게 연주한다.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생각하며 곡을 학습한다.

<악보 3> ‘아리랑’ 첼로악보

아리랑

경기민요

The score consists of four staves of music in bass clef, 9/8 time signature, and D major. The music features a triplet of eighth notes and various vibrato markings. Callouts provide performance tips:

- Callout 1:** 팔을 길게 사용하여 손목비브라토를 하며 서정적인 느낌을 표현 (Use long arms to use wrist vibrato and express a lyrical feeling).
- Callout 2:** 셋잇단음표 부분에 끊어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표현 (Express the triplet part smoothly so it doesn't break).
- Callout 3:** 세마치 장단 (Three-measure rhythm).
- Callout 4:** 이음줄 표현 하면서 vib를 넣는다. 음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 (Add vibrato while expressing the slur, be careful not to break the connection between notes).
- Callout 5:** 꾸밈음으로 꺾는소리를 표현 (Express the grace note as a slur).
- Callout 6:** 점 4분음표 간음에 강조하면서 vib넣기 (Add vibrato to the dotted quarter note grace note for emphasis).
- Callout 7:** 점 4분음표에 붙임줄까지 있어서 길어진 음이 있는 부분에는 vib를 풍부하게 표현하면서 부드럽고 서정적인 느낌으로 아리랑의 특징을 나타내도록 한다. (In the part where the note is extended by the slur, express vibrato richly and softly/lyrically to show the characteristic of Arirang).
- Callout 8:** 줄 이동할 때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길고 풍부한 손목비브라토를 표현. (Be careful not to hear noise when changing strings, and express a long, rich wrist vibrato).

(3) '아리랑' 주요 기법 비교

'아리랑'의 부드러운 곡의 흐름에 따라 긴 음에는 손목 비브라토를 표현하여 서정적인 느낌을 나타내며 꺾는소리를 앞꾸밈음으로 표현하고 전체적으로는 첼로의 악기 특성에 맞게 원곡에서의 짧은 박자를 긴 박자로 바꾸어 적용하였다.

'아리랑' 주요 기법의 비교는 <표 6>, <표 7>, <표 8>과 <표 9>, 에 제시하였다.



<표 4> '아리랑' 비교 1

원곡	적용
	
<p>처음 부분에 개방현으로 부드럽게 시작하고 2번째 마디에서 손목 비브라토를 넣어 '아리랑'의 서정적 느낌을 표현한다.</p>	

<표 5> '아리랑' 비교 2

원곡	적용
	
<p>원곡에서는 셋잇단음표에 꺾어지는 듯한 시김새를 넣는 대신 적용한 곡의 셋잇단음표에 이음줄을 이어서 부드럽게 연결한다.</p>	

<표 6> ‘아리랑’ 비교 3

원곡	적용
	
<p>앞부분에 손목 비브라토로 연주하여 ‘고’, ‘개’, 부분에 강조하듯 강하게 표현한다. ‘로’ 부분은 곡에 따라 박자를 빠르게 표현하기도 하여 적용한 곡에는 각 활로 박자의 변형을 표현하였다.</p>	

<표 7> ‘아리랑’ 비교 4

원곡	적용
	
<p>‘나’ 부분의 꺾는소리는 편곡에서 앞꾸밈음으로 표현하고 점4분음표 음에는 긴 손목 비브라토를 표현하여 음의 강조를 나타낸다.</p>	

(4) ‘진도아리랑’ 원곡

마단조의 곡으로 전체 분위기는 경쾌하고 강한 느낌이 나는 곡이다. 떠는 소리, 꺾는소리, 강하게 표현하는 부분 등 다양한 민요 기법이 있는 곡으로 남도 토리의 민요인 ‘진도아리랑’은 ‘아리랑’ 만큼이나 널리 알려진 민요이다. 당김음이 중간에 나오면서 박자의 흐름에 주의해야 하고 4번째 마디부분에 억양이 강하지만 약간은 흐르듯이 느낌을 표현하며 음의 효과를 더 살릴 수 있다.

<악보 4> '진도아리랑' 원곡

마 단조의 곡 108

뛰는 소리
음에 굽게 뛰는 소리를 내는 기법

쭈는 소리
짧게 음을 찍어서
표현

전라도 민요

불임줄이 있으므로 길게 뛰는
소리를 낸다.

16분음표 파에서 '시음으로 빠르게
흘러가듯 파에서 시로 소리낸다.

길게 뛰는 소리로 표현한다.

당김음의 박자를 주의한다

강하고 경쾌하게 곡의 분위기에
맞게 연주한다.

곡의 가장 높은 음 클리이 막스
음정에 주의하여 학습한다.

아 리 랑 으 으 으 아 리 가 났 네
아 리 랑 으 으 으 아 리 가 났 네
아 리 랑 으 으 으 아 리 가 났 네
아 리 랑 으 으 으 아 리 가 났 네
아 리 랑 으 으 으 아 리 가 났 네
아 리 랑 으 으 으 아 리 가 났 네

(5) 첼로기법을 적용한 ‘진도아리랑’

마단조 스케일을 통해 곡의 특징을 학습하고 다양한 민요기법을 익히도록 한다. 떠는소리는 손목 비브라토로 바뀌서 떠는 느낌을 표현하고 꺾는소리는 앞꾸밈음으로 꺾어지는 소리를 낸다. 7번째 마디에 16분음표는 쉽게 학습하기 위해서 4분음표와 8분음표로 적용하였다. 곡의 분위기는 원곡과 같게 경쾌하게 연주하도록 한다. 당김음이 중간에 나오며 박자에 유의해야 한다. 가장 클라이막스인 높은 ‘미’ 26째 마디는 1포지션에서 2포지션으로 이동하여 높은 ‘미’ 소리를 낸다. 마지막 줄 두 번째 마디에 높은음을 첼로 악보에는 점4분음표로 1포지션에 연주하도록 적용하였다.

<악보 5> ‘진도아리랑’ 첼로악보

The image shows a cello score for the piece 'Jindo Arirang'. The score is written in bass clef with a key signature of one flat (B-flat). It consists of 26 measures. The score is annotated with several callouts in Korean, providing performance instructions:


- Measure 1: 떠는소리로 첼로에서는 vib로 표현한다. (Express the 'talking' sound in cello with vibrato.)
- Measure 2: 떠는소리 대신 길게 vib로 표현한다. (Express the 'talking' sound with long vibrato instead.)
- Measure 3: 이음줄을 사용하여 당김음을 부드럽게 표현 (Use the bar line to express the pull note softly.)
- Measure 4: 경쾌한 분위기로 연주한다. (Play with a lively atmosphere.)
- Measure 5: 각활로 당김음을 빠르게 이동한다. (Use the bow to move the pull note quickly.)
- Measure 6: 떠는소리 대신 길게 vib로 표현한다. (Express the 'talking' sound with long vibrato instead.)
- Measure 7: 꺾는소리를 꾸밈음으로 표현한다. (Express the 'bending' sound with grace notes.)
- Measure 8: 활을 이동하면서 강하게 표현한다. (Move the bow while expressing strongly.)
- Measure 9: 첼로에서는 쉽게 4분음표, 8분음표로 편집 (In cello, edit easily into 4/8 notes.)
- Measure 10: Fine, D.C지켜서 연주 (Fine, D.C. Watch and play.)
- Measure 11: 아래활로 굵고 강한 vib표현 (Use the lower bow with thick and strong vibrato expression.)
- Measure 12: 가장높은음으로 첼로에서는 2포지션에서 연주한다. (Play the highest note in cello in 2nd position.)
- Measure 13: 높은'미' 대신 점4분음표 '시'로 바꾸어 부드럽게 음을 표현한다. (Instead of the high 'mi', change to a dotted 4/8 note 'si' to express the note softly.)
- Measure 14: Fine, D.C지켜서 연주 (Fine, D.C. Watch and play.)

(6) '진도아리랑' 주요 기법 비교



'진도아리랑' 분위기는 밝고 흥겨운 곡으로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민요의 특징을 나타낸 곡이다. 떠는소리는 짧은 손목 비브라토 기법으로 표현하여 곡의 분위기를 나타내었고 곡이 끊어지는 느낌이 나지 않도록 짧은 박자보다는 긴 박자로 활을 적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옥타브 부분에는 2포지션을 사용하여 높은 음역의 소리를 낼 수 있게 하였다.

'진도아리랑' 주요 기법은 <표 10>에서 <표 17>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표 8> '진도아리랑' 비교 1

원곡	적용
	
<p>'아-', '쓰-' 부분의 떠는소리는 짧은 손목 비브라토를 사용하여 진도아리랑의 민요의 특징을 나타낸다.</p>	



<표 9> '진도아리랑' 비교 2

원곡	적용
	
<p>꺾는소리를 앞꾸밈음으로 바꾸고 원곡에서 '네 ---' 부분은 각 활을 사용하여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표현한다.</p>	



<표 10> '진도아리랑' 비교 3

원곡	적용
	
<p>길게 붙임줄 부분은 굵고 긴 손목 비브라토로 풍부한 음을 표현하고 당김음 부분은 'V' 사용하여 '-리랑' 부분을 강조한다.</p>	



<표 11> '진도아리랑' 비교 4

원곡	적용
	
<p>원곡에서는 '가-' 16분음표와 떠는소리를 사용하였지만 적용한 부분에서는 첼로의 악기 특색에 맞게 4분음표와 8분음표 이음줄로 음을 흘러가듯이 표현하며 4분음표에는 짧은 손목 비브라토를 사용하여 표현한다.</p>	

<표 12> '진도아리랑' 비교 5

원곡	적용
	
<p>첼로의 특색에 맞게 당김음으로 사용하지 않고 점4분음표로 박자를 늘리고 긴 손목 비브라토를 사용하여 앞 가사를 강조하고 부드럽게 흘러가듯 표현을 하였다.</p>	



<표 13> '진도아리랑' 비교 6

원곡	적용
	
<p>원곡에 꾸밈음을 빼고 가사 '눈-물-이-'를 4분음표, 8분음표, 이음줄을 사용하여 이어가듯 느낌을 표현하였고 '이-' 부분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표현을 하기 위해 각 활을 사용하였다.</p>	

<표 14> '진도아리랑' 비교 7

원곡	적용
	
<p>2포지션을 사용하여 높음 음의 표현을 하였고 점2분음표는 긴 손목 비브라토를 사용하여 음의 극적인 효과를 표현한다.</p>	

<표 15> '진도아리랑' 비교 8

원곡	적용
	
<p>점4분음표에 짧은 손목 비브라토를 사용하며 두 번째 마디에 당김음 사용을 하지 않고 곡의 흐름에 맞게 점4분음표와 이음줄 사용으로 '진도아리랑'의 느낌을 표현하였다.</p>	

(7) '옹헤야' 원곡

'옹헤야'민요는 노래의 가사를 즉흥적이고 흥겹게 부르기 위해서 메기는 소리가 잘 이끌어 가야한다. 악센트를 주는 부분이 많으며 짧게 끊어서 소리를 내어 곡의 특징이 강조된다. 붙임줄 때문에 박자를 놓치거나 그다음 소리를 할 때 방해가 주면 안 된다.

두 번째 음에 악센트 있는 부분을 주의하여 곡의 신나는 분위기를 살려 연주해야한다.

<악보 6> '옹헤야' 원곡

서로 주거나 받거나 하며
곡의 흥겨움을 표현

앞에 강하게
센 소리를 표현한다.

중간음인 '라'에
악센트

붙임줄 때문에
박자에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

강하면서
짧게
끊어주는
표현

빠른 음표에 주의

두 번째 음에 센
소리를 낸다

단요리 장단
(메기는 소리)

결삼도 민요

1. 오늬실해-웨 짜만 놀이 보리밭에 알음늬네
2. 구월시황-보라-시어-통지삼달 색아터서
3. 미월삼황-보라-피니-오월유황 타작산다

(8) 첼로기법을 적용한 ‘옹헤야’

‘옹헤야’ 민요는 메기는소리는 첼로1, 받는소리 첼로2로 나누어 두 대의 첼로를 가지고 합주를 하는 형식으로 연주한다. 악센트 부분에 활을 눌러서 강하게 표현한다. 긴 박자나 붙임줄로 인해 길어진 음에는 손목 비브라토를 넣어 부드러운 소리를 낸다. 3번째 줄 마디에는 짧은 박자 16분음표가 어울리지 않아서 8분음표로 편곡하였다. 두 대의 첼로로 서로 소리를 들으면서 흥겹게 ‘옹헤야’ 특징을 살려 연주한다.

<악보 7> ‘옹헤야’ 첼로악보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two cellos, labeled '첼로1' (Cello 1) and '첼로2' (Cello 2). The score is in bass clef and 12/8 time. The title '옹헤야' is centered at the top. The first measure of Cello 1 is annotated with '가인소리 3단' and '첫음에 강하게 악센트 표현' (strong accent on the first note). The second measure of Cello 2 is annotated with '첫 활을 강하게 이동하면서 악센트를 표현한다.' (strongly move the bow while expressing the accent). The third measure of Cello 1 is annotated with '악센트를 하면서 스타카토로 짧게 끊어준다.' (cut off short with staccato while accenting). The fourth measure of Cello 2 is annotated with '셋째 단에서는 16분음표 대신 8분음표로 쉽게 편집' (easily edit with an 8th note instead of a 16th note in the third measure). The fifth measure of Cello 1 is annotated with '긴 음에 부드럽고 긴 vib 표현' (soft and long vibrato on the long note). The sixth measure of Cello 2 is annotated with '짧게 스타카토를 하여 짧게 표현하기.' (express with short staccato). The score consists of six measures for each part, with various rhythmic patterns and accents.

(9) '옹헤야' 주요 기법 비교



'옹헤야'의 주요 특징은 메기는소리와, 받는소리가 있는데 첼로 연주에서는 2중주곡으로 적용하였다. 그리고 곡의 악센트 부분이 경쾌하고 신나는 분위기를 나타내는 부분에는 활이 강하게 움직여서 악센트 기법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옹헤야' 주요 기법은 <표 18>, <표 19>, <표 20>과 <표 21>에 제시하였다.


<표 16> '옹헤야' 비교 1


<p>원곡</p>	 <p>첫 번째 마디는 뒤의 음인 '헤' 부분에 악센트를 넣어 강하게 표현하며 두 번째 마디부터는 첫 음에 악센트를 넣어 강세를 나타낸다. '절-' 부분은 16분음표로 짧게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나타낸다. 받는소리 부분은 3번째 마디만 제외하고 모두 '헤' 부분에 악센트를 표현한다.</p>
<p>적용</p>	 <p>적용한 곡에서도 원곡과 비슷하게 악센트를 넣어 활을 눌렀다가 빠르게 이동하여 악센트를 표현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마디의 16분음표는 악기특성에 맞게 표현하기 위해 8분음표로 편곡하였다.</p>

<표 17> ‘옹헤야’ 비교 2

<p>원곡</p>	
	<p>스타카토와 악센트를 넣어 ‘에-’, ‘에-’ 부분에 강조를 하며 두 번째 마디부터 앞 음에 악센트를 넣어 노래의 분위기를 더욱 흥겹게 표현한다.</p>
<p>적용</p>	
	<p>활을 줄 위에 꼭 눌렀다가 튕기듯이 □, √ 하여 악센트와 스타카토를 표현한다. 악센트는 활을 누르면서 빠르게 이동한다.</p>

<표 18> ‘옹헤야’ 비교 3

<p>원곡</p>	
	<p>가사의 표현을 위해 16분음표의 빠른 박자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받는소리는 메기는소리에 대답하듯 표현하였다.</p>

적용	
	<p>악기 연주이기 때문에 빠른 박자 사용을 하지 않고 첼로 악기 특성에 맞게 메기고 받는 부분의 흐름을 이어가듯 표현하였다.</p>

<표 19> ‘옹헤야’ 비교 4

원곡	
	<p>스타카토를 사용하여 흥겨운 느낌을 나타낸다.</p>
적용	
	<p>활을 튕기면서 짧게 스타카토를 표현한다.</p>

2. 첼로 학습 지도 계획

(1) 첼로지도 계획

이 연구에서는 민요를 활용하여 기악 기능을 습득하고 우리나라 음악을 이해하는 학습을 위해 단계별로 나누어 수업에 적용하였다.

<표 20> 단계별 지도 계획

<p>1단계 (1차시부터 4차시)</p>	<p>‘민요 익히기’ 제재곡 이해를 돕기 위한 연습곡 제재곡 (아리랑) 참고곡 (꿈길에서)</p>
↓	
<p>2단계 (5차시부터 8차시)</p>	<p>‘민요의 다양한 기법 익히기’ 다양한 민요 기법을 위한 연습곡 제재곡 (진도아리랑) 참고곡(가보트)</p>
↓	
<p>3단계 (9차시부터 12차시)</p>	<p>‘민요 합주하기’ 교사와 학생의 합주를 위한 연습곡 제재곡 (옹헤야) 참고곡(사랑의 협주곡)</p>

1단계는 ‘민요 익히기’ 단계로 ‘아리랑’을 제재곡으로 민요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기법을 학습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차시에는 제재곡 ‘아리랑’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습곡 3곡을 편곡하여 연주 기법을 부분 연습 하도록 한다. 부분적인 학습을 한 후 2차시에서는 9/8박자 형태의 곡인 ‘꿈길에서’를 참고곡으로 제시하여 ‘아리랑’을 학생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곡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곡을 연습한다. 3차시와 4차시에는 제재곡 ‘아리랑’을 학습하고 익히도록 반복적인 연습을 지도한다.

2단계는 ‘다양한 민요 기법 익히기’ 단계이다. 다양한 민요 기법이 수록 되어 있는 ‘진도아리랑’을 제재곡으로 첼로로 연주하여 민요의 특성을 표현 하는 수업을 진행 하도록 한다. 5차시에는 제재곡 ‘진도아리랑’을 학습하기 위해서 부분 연습곡을 편집하여 ‘진도아리랑’의 기법을 익힌다. 짧은 손목 비브라토연습과 앞꾸밈음 연습, 당김음, 2포지션 공부를 익힌 후 6차시에서 참고 곡 가보트를 학습 후 7, 8차시는 ‘진도아리랑’을 민요의 기법에 맞게 다양하게 연주하도록 한다.

3단계는 ‘민요 합주하기’ 로 배운 기법을 토대로 교사와 학생이 첼로2중주를 하는 단계 이다. ‘옹헤야’ 제재곡의 메기는소리와 받는소리 부분을 첼로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학생과 교사가 연주하며 학습하는 단계이다. 다양한 민요 특성과 기법을 경험하고 익힘으로써 우리나라 음악의 이해성을 넓히고 다양한 레파토리 확대를 경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9차시는 ‘옹헤야’ 제재곡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습곡을 학습한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2중주 할 수 있는 곡을 골라서 함께 협동하여 연주 하는 것을 학습 후 10차시에서는 현재 중1학년 교과서에 수록 되어 있는 ‘사랑의 협주곡’을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합주하여 제재곡인 ‘옹헤야’의 곡 이해를 돕는다. 11, 12차시는 그동안 배운 민요의 기법을 통해 민요 ‘옹헤야’ 곡을 연주 하도록 한다.

전체 단계의 활동 지도 계획은 <표 23>에 정리하였다.

<표 21> 전체 단계의 활동지도 계획

단계	차시	제재곡	활동
1단계 (민요 익히기)	1차시	‘아리랑’이해를 돕기 위한 연습곡	연습곡에서 사장조 음계로 구성되어진 곡을 학습을 한다. 점4분 음표와 8분음표의 리듬을 익힌다.
	2차시	‘꿈길에서’ (참고곡)	9/8박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고곡을 통해 학습한다.
	3차시	‘아리랑’	교사가 준비한 CD player로 ‘아리랑’을 들려준다. 그리고 이론을 설명 후 악기로 연주한다.
	4차시	‘아리랑’	연습한 ‘아리랑’ 곡을 민요 기법을 첼로 기법으로 바꾸어 연주한다.
2단계 (다양한 민요 기법 익히기)	5차시	‘진도아리랑’이해를 돕기 위한 연습곡	민요 기법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연습곡 수업에 학습한다.
	6차시	‘가보트’ (참고곡)	‘진도아리랑’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곡을 학습한다.
	7차시	‘진도아리랑’	전시에 배운 기법을 토대로 ‘진도아리랑’을 학습한다.
	8차시	‘진도아리랑’	‘진도아리랑’의 느낌을 살려 원곡처럼 경쾌하게 연주한다.

3단계 (민요 합주하기)	9차시	‘옹헤야’ 이해를 돕기 위한 연습곡	‘옹헤야’의 곡을 이해하기 위한 연 습곡을 학습한다.
	10차시	‘사랑의 협주곡’ (참고곡)	‘사랑의 협주곡’을 교사와 학생이 연주하며 합주기법에 대해 학습한 다.
	11차시	‘옹헤야’	‘옹헤야’의 민요 기법을 표현하며 교사와 학생이 함께 메기고 받는 부분을 연주한다.
	12차시	‘옹헤야’	그동안 배운 기법을 토대로 민요의 느낌을 표현하고 서로의 소리를 들 고 아름다운 음악표현을 한다.

지도 대상 및 수업 수는 <표 24>에 제시하였다.

<표 22> 지도 대상

대상	중급 수준의 학생 총 5명 -개인지도-
수업 수	총 12회 / 주 2회
수업 시간	1회 수업의 50분 중 30분지도

기초를 습득하고 첼로 지도의 주 교본인 스즈키 교본과 스트링 빌더 교본의 각 2~3권을 배우는 중급수준의 학생을 기준으로 하여 5명을 선발하여 민요를 활용한 첼로 지도를 하고 학생 1명씩 개인지도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첼로 수업 수는 주 2회 총 12차시로 구분되어 6주간 12회를 하며 수업 시간은 1회 50분 수업 중 tuning, scale, etude 시간을 제외하고 민요 수업 시간 만 30분으로 정한다.

3. 단계별 수업 지도안



지도안은 매 차시에 지도할 「학습목표」, 「지도내용」, 「학습활동」으로 구성하였다.


(1) 1단계

‘민요 익히기’ 단계로 총 1~4차시이며 각 차시에서는 제재곡 이해를 돕기 위한 연습곡과 참고곡, 적용한 ‘아리랑’을 학습 하도록 한다.

1) 1차시

가) 학습 목표	· 제재곡 ‘아리랑’의 민요기법을 연습곡으로 학습한다.
	· 9/8박자를 이해하도록 한다.
	· 긴 손목 비브라토를 학습한다.
	· 이음줄의 음표를 학습한다.
나) 지도 내용	· 학습 곡에 대해 설명
	· 사장조 음계연습
	· 9/8박자 이해를 돕기 위해 3박자 계통의 박자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4분음표와 8분음표의 이음줄의 음표 지도 · 손목 비브라토를 표현하여 부드럽게 연주 · 셋잇단음표 설명
<p>다) 학습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듬 익히기 <p>‘아리랑’은 9/8박자로 3박자 계통의 곡이다. 3박자 계통의 연습곡을 통하여 리듬을 학습하도록 한다. 점4분음표와 8분음표의 이음줄을 부드럽게 표현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악보 8> 토셀리 ‘세레나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장조 익히기 <p>사장조 연습곡을 학습하여 제재곡의 음계를 익히도록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악보 9> 찬송가 ‘참 반가운 성도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셋잇단음표 익히기 <p>‘아리랑’의 셋잇단음표 이해를 위해 연습곡을 학습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악보 10> 바흐 ‘미뉴에트’</p> 
--	---

2) 2차시

가) 학습 목표	· 9/8박자를 이해한다.
	· ‘꿈길에서’의 곡 특징을 이해하고 연주하도록 한다.
	· 붙임줄 박자를 학습한다.
나) 지도 내용	· ‘꿈길에서’ 곡의 특징 설명
	· 9/8박자의 리듬을 손벽을 치면서 학습
	·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사가 ‘꿈길에서’ 곡 연주
	· 빠르기말과 셈여림을 표현하며 연주하도록 지도
다) 학습 활동	· ‘꿈길에서’ 참고곡을 연주한다.
	· 9/8박자의 곡을 통하여 ‘아리랑’의 박자를 이해한다.
	· 긴 붙임줄 음표에는 부드럽게 긴 손목 비브라토를 넣어 곡을 표현한다.
	· 붙임줄 박자에 주의한다.
	· 서정적인 느낌을 표현한다.

<악보 11> '꿈길에서'

김달성 작곡
모스터 작곡

꿈길에서

3) 3차시 ~ 4차시

가) 학습 목표	· 배운 연습곡과 참고곡을 이해하고 '아리랑'을 연주한다
	· 민요의 기법을 첼로로 표현하도록 한다.
	· 9/8박자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 앞꾸밈음에 유의한다.
	· '아리랑'을 처음부터 끝까지 멈추지 않고 연주하도록 한다.
	· 첼로로 민요의 기법을 표현하며 연주한다.

나) 지도 내용	· ‘아리랑’ 곡 설명
	· 원곡 감상
	· 교사가 먼저 시범
	· 민요기법에 대해 설명
	· 꺾는소리와 앞꾸밈음의 차이 설명
	· 악보에 활을 표시하여 곡의 느낌을 잘 표현하도록 지도
	· ‘아리랑’ 원곡 악보와 적용한 악보를 비교하여 설명
	· ‘아리랑’의 이론적 배경 설명
다) 학습 활동	· 원곡을 듣고 첼로 기법에 맞게 연주한다.
	· 셋잇단음표 부분이 끊어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표현한다.
	· 꺾는소리를 앞꾸밈음으로 하여 민요의 느낌이 나도록 연주한다.
	· 점4분음표의 부분에 비브라토를 넣어 연주한다.
	· ‘아리랑’ 특성에 맞게 서정적이고 부드럽게 연주한다.
	· 어려운 부분은 반복적으로 연습한다.
	· 활을 사용하여 민요의 특성을 나타내도록 한다.
	· 실제 연주하듯이 ‘아리랑’을 연주한다.
	· ‘아리랑’곡의 기법을 정확하게 학습하도록 한다.
· 곡의 분위기에 맞게 연주하도록 한다.	

(2) 2단계

‘민요의 다양한 기법 익히기’ 단계로 총 5~8차시이며 제재곡은 ‘진도아리랑’이다. 다양한 민요 기법 학습을 위해 연습곡 5곡을 제시하였고 참고곡은 다양한 기법의 곡인 ‘가보트’를 선정하였다.

1) 5차시

<p>가) 학습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리랑’에서 배운 9/8박자를 복습한다. · 마단조 음계를 익힌다. · 앞꾸밈음을 학습한다. · 짧은 손목 비브라토를 연습한다. · 당김음 박자를 이해하도록 한다.
<p>나) 지도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박자 설명 · 학습할 내용과 기법에 대해 설명 · 마단조 음계 학습 · 당김음 박자 학습
<p>다) 학습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단조 이해하기 <p>‘진도아리랑’ 음계는 마단조로 구성되어 연습곡을 통하여 학습하도록 지도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악보 13> 드보르작 ‘신세계 교향곡’ 4악장</p>

· 짧은 손목 비브라토 연습하기

‘작은별’의 짧은 손목 비브라토 연습을 통하여 민요의 기법인 떠는소리를 표현 하도록 지도한다.

<악보 14> ‘작은별’



· 당김음 학습하기

‘진도아리랑’의 당김음을 ‘루돌프 사슴코’ 연습곡을 통하여 학습하도록 지도 한다.

<악보 15> 캐롤 ‘루돌프 사슴코’



· 앞꾸밈음 학습하기

민요의 꺾는소리를 ‘나비아’에 앞꾸밈음을 넣어 학습하도록 지도한다.

<악보 16> ‘나비아’



· 2포지션 학습

‘진도아리랑’에 나오는 높은 음 표현을 위하여 2포지션을 연습한다.

<악보 17> 포지션 연습곡



2) 6차시

가) 학습 목표	· 전시 배운 내용을 복습한다.
	· ‘진도아리랑’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곡 ‘가보트’를 연주한다.
	· 다양한 기법을 정확하게 익히도록 한다.
	· 민요 기법과 첼로 기법의 차이를 이해한다.
나) 지도 내용	· ‘가보트’와 ‘진도아리랑’ 기법에 대해 설명
	· 스타카토 활 쓰는 방법 지도
	· Fine와 D.C에 대해 설명
	· 곡의 특징을 설명하고 다양한 기법을 연주하도록 지도
	· 앞꾸밈음 기법을 잘 표현하도록 지도
· 2포지션 이동에 주의하도록 지도	
다) 학습 활동	· 다양한 기법이 특징인 ‘진도아리랑’의 기법과 비슷한 ‘가보트’ 곡을 선정하여 곡의 전체적인 특징을 익히도록 한다.
	· 테누토 부분에 짧게 손목 비브라토를 넣어 곡의 느낌을 표현한다.
	· 16분음표 부분의 박자에 유의하면서 연주한다.
	· Fine와 D.C를 지켜서 연주한다.

<악보 18> 가보트

Gavotte 가보트 F. J. Gossec

Allegretto

rit. a tempo p Fine mf p p pizz. D.C.

3) 7차시 ~ 8차시

가) 학습 목표	· 전시 학습한 기법으로 ‘진도아리랑’을 표현한다.
	· 2포지션에 주의하여 연주한다.
	· 원곡을 감상하고 첼로로 표현한다.
	· 민요의 다양한 기법을 이해하고 곡의 특성에 맞게 연주한다.
	· 처음부터 끝까지 곡의 경쾌한 느낌을 표현하며 연주한다.

나) 지도 내용	· ‘진도아리랑’ 원곡 감상
	· 2포지션에 대한 이론 설명
	· 악보를 보고 기법에 대해 설명
	· 기법 표현하기가 잘 되지 않을 경우, 5차시에 배운 연습곡 다시 복습
	· 4분음표에 강하고 짧은 손목 비브라토를 넣어 연주 하도 록 지도
	· 경쾌한 분위기를 표현하며 연주 할 수 있도록 지도
	· ‘진도아리랑’의 이론적 배경 설명
다) 학습 활동	· ‘진도아리랑’의 다양한 기법을 첼로 기법에 맞게 편곡하여 곡의 특징을 나타내어 연주 하도록 한다.
	· 떠는소리를 손목 비브라토로 표현하여 연주한다.
	· 이음줄을 사용하여 당김음을 부드럽게 표현한다.
	· 긴 음에는 굵고 강한 손목 비브라토를 표현한다.
	· 2포지션에 주의하여 곡의 클라이막스 부분을 잘 표현한다.
	· 정확하게 민요 기법을 학습하였는지 질문하고 대답하며 학습내용을 습득한다.
	· 연주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원곡의 느낌과 비슷하게 ‘진도 아리랑’을 연주한다.
	· 떠는소리, 평으로 내는 소리, 꺾는소리 표현을 적절하게 표현하도록 한다.

<악보 19> '진도아리랑' 첼로 악보

진도아리랑


위마지 강단 권라도 민요

The image shows a cello score for the piece 'Jindo Arirang'. It consists of eight staves of music in bass clef with a key signature of two flats (B-flat and E-flat) and a 2/4 time signature.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eighth and sixteenth notes, rests, and slurs. Above the notes, there are performance markings: '위마지 강단' (Wimaji Gangdan) on the first staff, '권라도 민요' (Gwondado Minyo) on the top right, and 'Fine' at the end of the second staff. The piece concludes with 'D.C.' (Da Capo) at the bottom right of the eighth staff.

(3) 3단계

‘민요 합주하기’ 단계이다. 총 9차시~12차시이며 제재곡은 ‘옹헤야’이다. ‘옹헤야’의 메기는소리, 받는소리를 첼로에서는 첼로 2중주로 표현한다. 이해를 돕기 위한 연습곡과 참고곡 ‘사랑의 협주곡’을 첼로 2중주곡으로 학습한다.

1) 9차시

가)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옹헤야’ 기법을 이해한다. · 악센트를 학습한다. · 합주곡을 통하여 서로의 소리를 들어본다.
나) 지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울 내용 기법에 대해 설명 · 악센트 기법의 활 쓰기 지도 · 붙임줄 박자를 익히도록 지도 · 2중주를 학습할 때 서로의 소리를 듣는 방법 설명
다) 학습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센트와 스타카토 연습 · 악센트를 위한 연습곡을 통하여 ‘옹헤야’의 특징을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악보 20> ‘알레그레토’</p> 

· 첩포 익히기

‘옹헤야’의 메기는소리, 받는소리 부분에 나오는 첩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습곡을 연습하도록 한다.

<악보 21> ‘빠꾸기’



2) 10차시

가) 학습 목표	· 교사와 학생이 첼로 2중주를 연주한다.
	· 다른 악기 소리를 듣는 방법을 학습한다.
	· 2중주 음계에 대해 이해한다.
나) 지도 내용	· 2중주곡을 연주할 때의 주의점 설명
	· 제재곡의 리듬과 비슷한 부분의 박자 설명
	· 혼자 독보하는 능력 지도
	· 활이 틀리지 않도록 지도
다) 학습 활동	· 2중주곡인 참고곡을 학습하여 ‘옹헤야’ 메기는소리, 받는 소리의 특징을 표현하도록 한다.
	· 다른 음이지만 제1첼로와 제2첼로의 서로 비슷한 리듬의 주고 받는 형식을 이해하며 연주한다.
	· 활을 주의하며 연주한다.
	· 4/4 박자를 이해하며 연주한다.
	· 서로 호흡하며 아름다운 합주곡을 연주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와 학생은 서로 호흡을 맞추며 경쾌하고 즐겁게 곡에 어울리는 합주를 하도록 한다. · 곡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한다.
나) 지도 내용	· 악센트 부분에 활쓰기 학습 지도
	· 짧게 스타카토를 표현하는 방법 설명
	· 긴 음에 손목 비브라토를 사용하여 소리 내도록 지도
	· 두 번째 음에 나오는 악센트 표현에 유의
	· ‘옹헤야’ 원곡 감상
	· 원곡과 첼로로 적용한 기법의 차이점 설명
	· 1차시부터 배운 민요 기법에 대해 복습
· 서로 위 선율과 아래 선율을 번갈아 가면서 연주	
다) 학습 활동	· ‘옹헤야’의 특징을 첼로 기법에 맞게 적용하여 다양한 민요 기법을 표현하도록 연주한다.
	· 두 번째 음에 윗활(∨)로 힘을 강하게 주면서 이동하여 악센트를 표현한다.
	· “에헤에헤” 마디에는 악센트를 하는 동시에 스타카토로 짧게 끊어서 표현한다.
	·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곡의 흥겨움을 표현한다.
	· 악센트의 올바른 표현으로 곡의 느낌을 잘 표현하며 연주한다
	· 긴 박자에는 긴 손목 비브라토로 표현하고 짧은 박자에는 짧은 손목 비브라토로 표현하여 연주한다.
	· 쉽표 박자를 정확하게 학습한다.

<악보 24> '옹헤야' 첼로 악보

옹헤야

가장도리 경단 경상도 민요

여기소리 (1. 첼로)

반주소리 (2. 첼로)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for cello and consists of four systems. Each system has two staves. The top staff is labeled '여기소리 (1. 첼로)' and the bottom staff is labeled '반주소리 (2. 첼로)'. The music is in a 4/4 time signature and features a mix of eighth and sixteenth notes, often beamed together. There are several rests and dynamic markings throughout the piece. The title '옹헤야' is centered at the top, and '가장도리 경단' and '경상도 민요' are placed above the first system.

(4) 민요 학습 후 평가의 사례

첼로 교본을 보면 서양의 민요곡이 많이 수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한국 민요보다 서양 민요곡을 많이 접한 학생들이 민요를 연주하는 것은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연습곡과 참고곡을 편곡하여 흥미와 다양한 기법을 학습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의 지도 대상 5명의 학생들에게 민요를 활용한 첼로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의 민요에 대한 생각과 민요학습에 대한 흥미도와 적극적인 학습 참여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다. 민요에 대한 태도 평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 문항은 1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표 23>에 제시하였다.

<표 23> 첼로 학습 후 학생 평가

첼로 지도 후 학생 학습 평가.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1. 나는 민요에 대해 흥미를 느꼈다.			
2. 나는 민요에 친해 진 것 같다.			
3. 나는 공부한 민요곡을 이해하였다.			
4. 참고곡은 도움이 되었다.			
5. 9/8박자를 정확하게 학습하였다.			
6. 선생님과 2중주 학습이 즐거웠다.			
7. 민요 학습 후 악보 보는 능력이 좋아졌다.			
8. 민요곡을 더 연주하고 싶다.			
9. 민요곡을 첼로로도 잘 연주 할 수 있다.			

10. 예전에 배운 첼로 곡보다 민요가 더 어려운 것 같다.			
11. 레슨 전에 선생님이 민요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			
12. 민요곡이 첼로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로 대답을 하였는데 수업이 흥미롭고 첼로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민요가 친숙하고 앞으로도 배우고 싶다’라고 5명 모두 답한 결과를 보면 학생들은 민요 학습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앞으로 다양한 첼로 학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말한 학생도 있었다.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민요와 첼로 지도를 위한 다양한 학습 자료와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지도 방법에 대해 더욱 다방면의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A. 결론

이 연구는 중급자의 효율적인 첼로 학습 지도를 위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중급자 레슨에서 느낀 문제점은 지루한 첼로 교본과 학습곡마다 필요한 기법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기법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학습만 하다 보니 지루해지고, 비슷한 기법의 곡에서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고 흥미유발과 민요교육의 강조에 따라 민요 3곡을 선정하여 각 단계로 나누어서 민요의 다양한 기법에 따른 연습곡과 참고곡, 제재곡을 편곡하여 지도를 하였다. 이 지도 과정에서 새로운 학습을 통해 학생의 적극적인 학습태도와 다양한 기법의 이해력과 집중도를 살펴볼 수 있었다.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첼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악기의 역사와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민요에 대해 교육적 가치와 다양한 첼로 수업을 위한 민요 ‘아리랑’, ‘진도아리랑’, ‘옹헤야’에 대해 선정한 기준, 특징과 주요리듬, 장단, 형식, 구성음, 악곡의 특징을 분석하여 각 민요의 원곡과 첼로기법으로 변형한 곡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민요 중심 교육으로 중급자 대상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법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전래동요가 많이 수록 되어 있는 초등학교 교과서보다 민요곡이 많은 중학교 16종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수록 되어 있는 ‘진도아리랑’ 과 ‘옹헤야’ 그리고 많이 알려진 ‘아리랑’을 적용하였다.

민요 학습을 위하여 총 3단계로 나누었고 각 단계는 4차시씩으로 구성되어서 총 12차시로 수업지도안을 작성하였다.

1단계로 ‘민요 익히기’는 1차시에서 4차시로 구성되었으며 제재곡은 ‘아리랑’이다. ‘아리랑’의 9/8박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3박자 계통의 연습곡과 사장조 익히기, 셋잇단음표 익히기 연습곡을 편곡하여 지도하였고 참고곡은 ‘아리랑’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비슷한 ‘꿈길에서’ 곡을 통하여 아리랑의 서정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학습을 한 후 제재곡 ‘아리랑’을 심화 학습하도록 하였다.

2단계는 ‘다양한 민요 기법 익히기’ 단계로 5차시부터 8차시로 제재곡은 ‘진도아리랑’이다. ‘진도아리랑’은 단조(계면조)로 되어 있어 마단조의 짧은 연습곡과 짧은 손목 비브라토를 위한 곡과 당김음, 꾸밈음, 2포지션 학습을 위한 연습곡을 적용하여 지도하였다. ‘진도아리랑’의 다양한 기법과 비슷한 곡인 ‘가보트’를 학습하고 제재곡 ‘진도아리랑’을 첼로곡으로 적용하여 학습하였다.

3단계 ‘민요 합주하기’는 9차시에서 12차시로 되어 있다. 제재곡은 ‘옹헤야’ 곡으로 이 곡의 특징은 메기는소리와 받는소리의 형식이다. 이 부분은 첼로 2중주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합주하도록 하였다. ‘옹헤야’의 곡에서 악센트와 쉼표 익히기, 1첼로와 2첼로가 함께 비슷한 유형으로 합주 할 수 있는 곡으로 적용하여 학습하도록 하였으며 참고곡은 ‘사랑의 협주곡’으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합주한 후 ‘옹헤야’ 곡을 학습하였다.

이러한 학습 결과에서는 제재곡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짧은 연습곡을 통해 기법을 이해하여 참고곡에서 스스로 기법을 활용하고 연주하였다. 그리하여 연습곡과 참고곡이 잘 연계를 이루어 제재곡에서 능률이 향상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민요 지도 후 학생들의 소감을 묻는 평가에서는 어렵게 느꼈던 민요에 대해 흥미롭고 친숙해졌으며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곡을 첼로 학습에 많이 활용하였으면 하는 소감을 밝혔다.

B. 제언

선정한 3곡의 민요를 적용한 학습지도안은 첼로의 악기 특성을 고려하여 음악적인 표현보다는 서양악기를 통해 민요의 기본적인 기법에 대한 학습만을 고려하였으므로 추후에는 음악적인 표현과 연계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에 출판되는 교재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흥미를 위하여 교사들의 교재 연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필요한 교재를 적절히 선택하여 병행 하는 지도방법을 개발하여 첼로 교육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를 제언한다.

첼로를 배우는 학생의 수요가 늘어나고 한국음악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첼로를 지도하는 교사는 타당한 목적아래 학생을 지도하고 질적으로 충실한 내용을 선정하여 효과적으로 지도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현장에서 첼로지도를 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다양한 레파토리를 제시함과 동시에 지도안을 세우고 교육내용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이 연구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간행물 (국내·외)

교육부, 「음악과 교육 과정」 서울 :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1998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체육, 음악, 미술」

서울 :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1999

국립국악원, “민요 이렇게 가르치면 재 맛이 나요”

서울: 국악교육협의회 , 1997

김을곤, 「새 악기 해설」 서울 : 다름 출판사 , 1995

김종부, “공자와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 연구”

음악교육연구 , 1990

백성현, “한국민요” 「음악 교육」 9월호 , 2001

이구일, 「전통 주법과 최신 지도법에 의한 첼로 교실」

서울 : 현대음악 출판사 , 2006

이성재, 「재미있는 국악 길잡이」 서울 : 서울미디어 , 1994

전통예술원, “한국 민요의 음악학적 연구”

한국 예술 종합학교 자료집 , 2003

정동화, 「아리랑 산고」 서울 : 인하국어 교육학회 , 1999

Julius Bachi 저, 편집국 역, 「세계의 명 첼리스트」

서울 : 세광출판사 , 1986

2. 교과서

김미숙 외 「중학교 음악 1학년」 서울 : 더텍스트 , 2010

백병동 외 「고등학교 음악」 서울 : 천재교육, 2001

이용일 외 「고등학교 음악과 생활」 서울 : 교학사, 2001

3. 악보

스즈키 「첼로 교본1」,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97

스트링 빌더 「첼로 교본2」, 서울 : 삼호뮤직, 2002

ABSTRACT

A Study on the Teaching Method of Cello by Applying Korean Folk Song

Kim, Hyo Jin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Korean music and to vitalize expressing the Korean sentiment by applying various techniques for Korean folk song into techniques for cello during the teaching course for intermediate cellist and leading to students' interest in education for both Korean folk song and cello, because recently the education of Korean folk song has taken on great importance.

For more understanding in cello instrument, its changes and structure were presented in this study, and the educational value of Korean folk song, which is emphasized in music education, and such Korean folk songs as 'Arirang', 'Jindo Arirang', and 'Ongheya' were analyzed. In addition to that, the original music of the above Korean folk songs was compared with another music arranged by cello techniques for them. How to apply various techniques into cello was presented by table, and teaching plan was made for

selected 5 intermediate students to learn cello. Studies and reference pieces for learning techniques for Korean folk song were introduced, in accordance with such three courses as 1st step 'learning Korean folk song', 2nd step 'learning various techniques for Korean folk song', and 3rd step 'performing an ensemble piece for Korean folk song'. Teaching plan was applied by dividing 12 times in total, and then the students were evaluated.

This study brought the students to improve their skill in cello by learning musical expression through presented Korean folk songs, and to have an interest and effect by developing their fundamental skill in continuation and expanding repertoire by themselves within the musical context. It is hoped that teaching method of cello by applying Korean folk song can be used in effective for teachers to teach intermediate students, and joyful and interesting teaching methods of cello will be developed through creative and various repertoires.